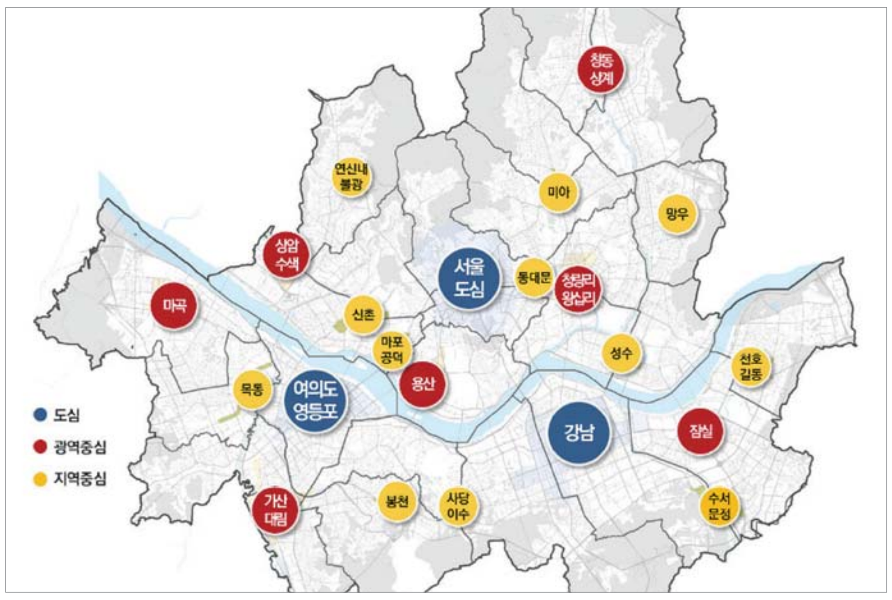
"서울시, 중심지체계 '다핵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 필요"

서울硏, 정책리포트 412호 발간

서울도심·강남, 타 중심지 보다 건축물 규모·업무기능 등 압도적 여의도·영등포는 그 절반 수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 /서울연구원

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중심지 체계를 도시 활력과 기능적 다양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발간된 정책리포트 412호에서 "서울의 중심지 체계를 진단한 결과 기능과 규모가 편중됐으며, 계획과 현황의 미스매치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래 서울의 중심지 체계는 도시 활력과 다양성을 높이는 '다핵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1990년 이후 법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간의 목표와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의해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 체계를 유지 중이다. '도심'은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견인하는 공간으로 서울도심과 여의도·영등포, 강남으로 구성됐다. '광역중심'은 광역 경제권의 일자리 거점이자 다기능 복합 중심이며, '지역중심'은 권역 생활권의 자족 기능 근거지로 고차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고서는 특정 도심에 기능이 편중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서울도심과 강남은 다른 중심지에 비해 건축물 규모, 업무 기능, 생활인구 등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여의도·영등포는 그 절반 수준이었다.

건축물 연면적의 경우 강남은 3604만㎡, 서울도심은 3130만㎡로, 여의도·영등포(1537만㎡)의 2배가 넘었다. 주간 생활인구는 강남이 76만명, 서울도심이 66만명인 데 비해 여의도·영등포는 22만명에 그쳤다.

연구진은 "3도심 간 규모의 차이로 인해 서울도심과 강남 위주로 기능과 활동이 집중됐다"면서 "장기간 육성 노력에도 일부 중심지에서는 계획과 현황의 미스매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도심과 강남의 '2강(强)' 양상과 광역중심 중 일부 중심지에 일자리 기능이 편중된 게 문제점으로 꼽혔다. 당초 시는 중심지 체계를 통해 3개 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 했으나 여의도·영등포의 중심성은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규모의 차이와 사업 지연으로 3도심 간 기능 분담에 차이가 발생했다.

또 보고서는 "광역중심은 가산·대림, 잠실, 마곡, 용산 위주로 일자리 기능이 집적됐다"며 "창동·상계, 청량리·왕십리 등은 광역중심으로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계획 내용의 잦은 변경으로 목표 실현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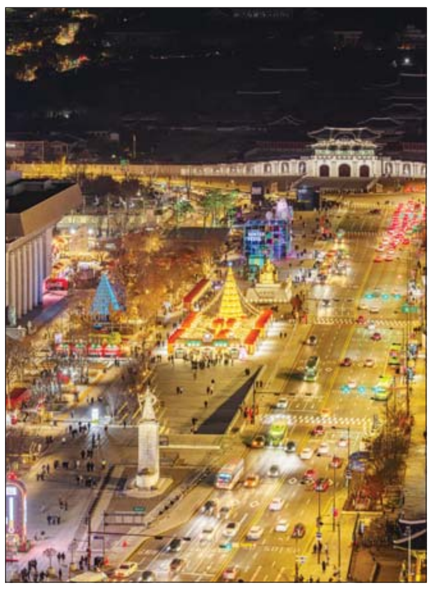
연구진은 다양한 도시활동 거점으로서 중심지 개념과 역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금까지 서울의 중심지 체계는 고용 집적지를 중심으로 지정, 신규 일자리 거점을 육성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일자리 및 쇼핑·여가·문화 등 도시 활동 전반이 집적된 '활동 중심지'로 개념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는 다핵 네트워크 구조의 중심지 체계로 전환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도심과 그 외 하위 중심지로 구분하는 위계는 유지하되, 권역별 중심지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3도심에는 서울의 경쟁력을 견인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광역중심 이하 중심지는 기능 고도화를 전제로 특화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윈터페스타' 방문객 539만명 기록

3주간 하루평균 22.4만명 방문
광화문 마켓·서울라이트DDP 호응


'2024 서울윈터페스타' 행사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작년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열린 '2024 서울윈터페스타' 행사에 539만명(누적)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해 행사장의 일평균 방문객 수는 22만4000명으로, 전년(18만8000명) 대비 3만6000명 증가했다.

시는 '산타 마을' 콘셉트로 꾸며진 '광화문 마켓'과 미디어파사드 작품으로 5명의 작가가 전하는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선보인 '서울라이트 DDP'가 큰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민 소망이 담긴 '위시 라이트(소원볼)'가 광화문광장을 수놓았으며, 프로그램 참여 전액을 기부해 연말연시 온기를 나눴다고 시는 덧붙였다.

마채숙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024 서울윈터페스타는 '안전하고 희망찬 도시' 서울을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을 안겨줬다"며 "앞으로도 '서울윈터페스타'를 서울의 겨울을 상징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서울을 '세계인이 찾고 싶은 겨울 관광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발급 대상 확대

막내자녀 15세 이하→18세 이하로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경기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대상을 막내 자녀 나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

막내 나이 기준이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혜택받는 가구가 63만 가구에서 76만 가구로 13만 가구 늘어날 예정이다.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는 다자녀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농협이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인 사업이다.

주요 혜택은 ▲학원업종 및 병·의원 7% 할인 ▲GS주유소 이용 시 리터당 80원 할인 ▲커피전문점 5% 할인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이용 시 5% 할인 ▲패밀리 레스토랑 5% 할인 ▲GS25, CU, 세븐일레븐 5% 할인 ▲경기도내 시군 공영주차장 할인 ▲협력가맹점 할인 서비스 등이다. 전월실적에 따른 할인한도 등 세부사항은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는 고등학생까지 발급대상을 확대하면서 중·고등학생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스터디카페 이용 혜택을 추가로 도입했다. 전국 200여 개 가맹점을 보유한 초심스터디카페의 온라인몰(초심몰)에서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인증 후 e카드(금액권)를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10%가 마일리지로 적립되는 방식이다. 구매한 e카드는 초심스터디카페 경기도 내 전 지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e카드를 사용할 초심스터디카페 가맹점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유·초 연계 이음교육' 동영상 공개

서울시교육청, 연수·홍보자료 활용

서울시교육청은 '유·초 연계 이음교육'의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잇다' 동영상을 개발해 13일부터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초 연계 이음교육이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 전이, 적응 과정의 이음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유아, 교사, 부모, 기관, 지역사회 차원에서 함께 협력해 다각도로 추진하는 교육적 지원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과 협력해 제작한 이번 동영상 자료는 9분 34초 분량으로 유·초 연계 이음교육을 운영하는 모두가 연수와 홍보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음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이음교육은 왜 필요할까요 ▲이음교육은 누가 참여할까요 ▲이음교육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이음교육은 어떤 점이 좋을까? ▲유·초 연계 이음교육 현장으로 가볼까요 등이다.

특히, 이번 동영상 자료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유·초 연계 이음교육'의 활동 모습과 대상자별 인터뷰도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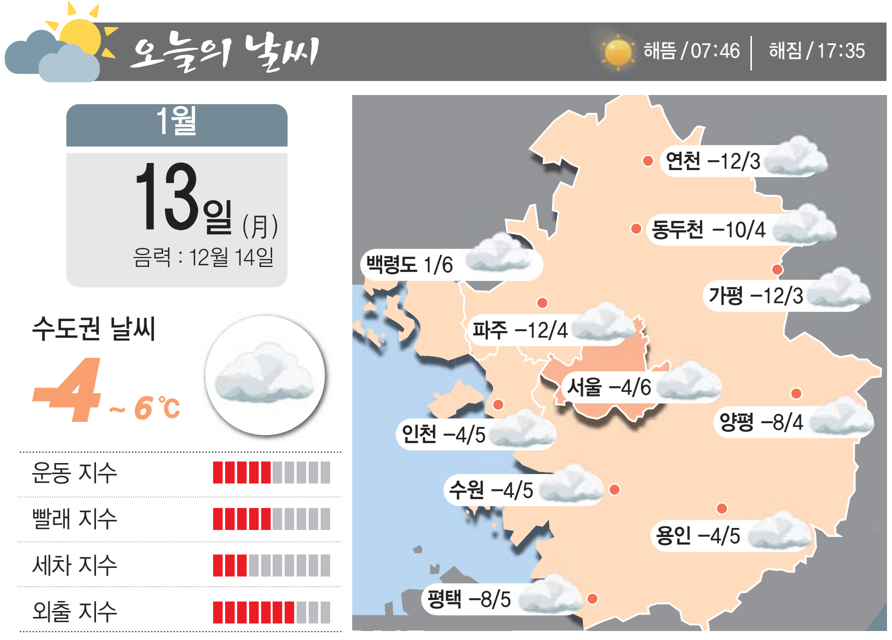
/이현진 기자 lhj@

車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서울시, 오는 31일까지 실시

서울시는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 개선 부담금을 오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12일 밝혔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 소유자에게 환경 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부과 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대기·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쓰인다.

/김현정기자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보잉 여객기가 또…美 애틀랜타서 엔진 고장으로 회항·201명 긴급대피

▲이시바 日총리, 2월 전반 트럼프와 정상회담 최종 조율중 /사진 뉴시스

▲'트럼프의 대선결과 번복 시도 수사' 美특검 수사보고서 제출 후 사임

▲"하마스에 피해입은 미국인들, 북한 상대 소송 '외교 경로' 통해 시도"

▲네덜란드 헤이그 서 기후변화 활동 시위대 도로 봉쇄, 700여명 체포

▲러 "美제재, 세계 시장 불안 위협 감수한 것…석유 사업 등 지속"